■ 계란유통현황 1/경북지역

절반은 외지상인이 떠가고 나머지 절반중 30%가 외지로 반출된다

□ 취재/권동원 기자

"창고마다 계란이 가득 쌓여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체화될 때는 협회 차원에서 즉각 내리고 딸릴 때도 즉각 올려야 계란이 원활하게 처리……"

기자가 경북지역 유통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본회 경북지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마침 대구지역 도매상인 16명으로 구성된 상란회 회원들이 경북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박해탁 지부장과 계란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동반자로서의 생산자와 상인

상인들은 계란 고시가격 변동 날짜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지부에서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란가격 조절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 달라고 협회에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박해탁 지부장은 "협회에서 계란가격을 조절할 때는 상인들과 타협하여 조절하고 있으나 어떤 때는 상인들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인하해야 할 시점에서도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산자들도 생산비 이상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는데 크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정확한 시장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정확한 시장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언제든지 가격변동 요인이 있을때 즉시 가격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상인들끼리 무리한 경쟁으로 대구지역 상인들은 이윤이 박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소주잔이 오고가는 가운데 지부장과 상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대립하기 보다는 상대를 인정하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870만수 사육, 전국의 21%

계란가격 조절은 생산자와 상인 7~8명이 모여 합의를 거친 다음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되어 협회가 발표한 계란가격은 흐트러짐 없이 준수되고 있다. 생산자는 물론 상인들도 이 규칙을 결코 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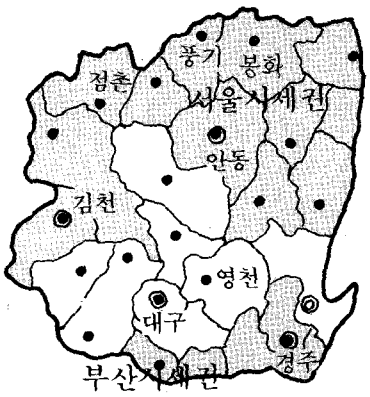
경상북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란계 수수는 8백70여만수로 전국의 21%를 점유하여, 경기도에 이어 2번째 계란생산지이다. 반면 대구시는 20만수 정도 사육되고 있으며 도시화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북지

역에는 정착농원이 많아 김천 삼애원이 130만수, 경주 희망원 80만수, 칠곡농장 45만수 등 20여개 정착농원에서 360만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정착농원의 가구당 사육규모는 5천수 미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북지역 가구당 사육규모는 타지역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5천수 미만 사육농가가 308호, 5천~1만수 규모농가가 298호, 1만~3만수 규모농가가 127호, 3만~5만수 규모농가가 4호, 5만수 이상 사육농가가 16가구이다.

경북지역 계란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생산량중 50% 이상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계란만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도 서울이나 부산 시세를 적용하여 서울, 부산 등 외지상인이 직접 떠가고 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란일뿐 생산 이후 단계에서는 경상북도와 전혀 무관한 계란이 된다.



50%는 서울, 부산 시세 적용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천, 봉화, 풍기, 안동, 청송 등 북부지역은 서울로 직접 반출되고 있다. 또 경주, 청송지역은 부산권으로 편입되어 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이 외지상인에 의해 집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김천 삼애원의 경우 90%는 서울상인이, 10%는 대구상인이 거래하고 있다.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시세권으로서 서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마산지역은 예외적으로 대구상인에 의해서 경북계란이 반출되고 있다. 마산으로 이동되는 계란은 1일 15만개정도로 추산된다.

소비기반이 미비

동대구계란유통 김춘현 사장은 "경북에서 생산되는 계란중 50%는 외지상인이 집란해 가고, 50%는 대구·경북상인이 집란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상인이 집란한 계란도 그중 30%는 또다시 외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결국 김춘현 사장에 의하면 경북지역 생산량의 2/3에 가까운 계란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경북 계란이 이처럼 많이 외지로 반출되는 이유는 경북이 전국 제2의 생산지역이지만 대량소비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으나 식품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공장납품은 1일 2.5톤 트럭 1대분량에 머물고 있으며, 군납도 1일 1천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북지역은 가정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란가격은 경북지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농장에서 3원 낮은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다. 농장에 따라 1원 이내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시가격은 잘 지켜지고 있다.

도매상 개당 1원 순수익

도매상들은 3원 인하된 가격에 집란을 해와 소매상에게 고시가격에서 1원을 뺀 시세로 판매하고 있어 개당 2원의 마진을 보고 있다. 도매가격 역시 거의 지켜지고 있다. 상인들에게 계란이 체화될 때도 외지로 덤핑판매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지역내 덤핑은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외지에서 덤핑계란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문나지 않도록 밀실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에는 1일 10만개 이상을 처리하는 대상이 7명 정도, 3만개에서 10만개를 처리하는 중상이 10명 정도이며, 이외에 3만개 이하를 처리하는 소상인이 있다고 한다.

소금적용이나 후장기는 없다.

도매상들은 개당 2원 마진에 처리하고 있으나 운임, 인건비 등 처리비용에 개당 1원 정도가 소요되어 순수익은 개당 1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란유통은 타농산물에 비해 마진폭이 적은 편이다. 또 경북지역은 서울처럼 계란가격 소금적용이나 후장기 등 상인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10만개 이상 처리하는 대상인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 정착농원을 주거래선으로 하고 있으며, 판매는 서울상인과 고정거래선을 가지고 일정량을 반출하는 상인도 4명 정도 있으며, 각도매상에는 평균 10대 정도의 소매차를 거느리고 있다. 3~10만수 규모의 중상인은 정착농원과 개인농장을 적절히 거래하며, 외지상인과의 거래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3만개 이하를 처리하는 소규모 도매상들은 처리물량이 적은 대신 마진이 높은 직접배달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직접배달의 경우 개당 순수익은 3원 정도이며, 소상인들은 일정물량을 체화없이 안정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시장에서 직접 소매를 하면서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오는 상인도 있어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계란 유통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또한 상인들이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규모 부도 2건 발생

몇달전 대상인 2명이 부도가 발생했다. 부도금액은 6억7천만원이었다. 부도원인은 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화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다고 한다. 어느 상인은 서울처럼 소금적용이나 후장기 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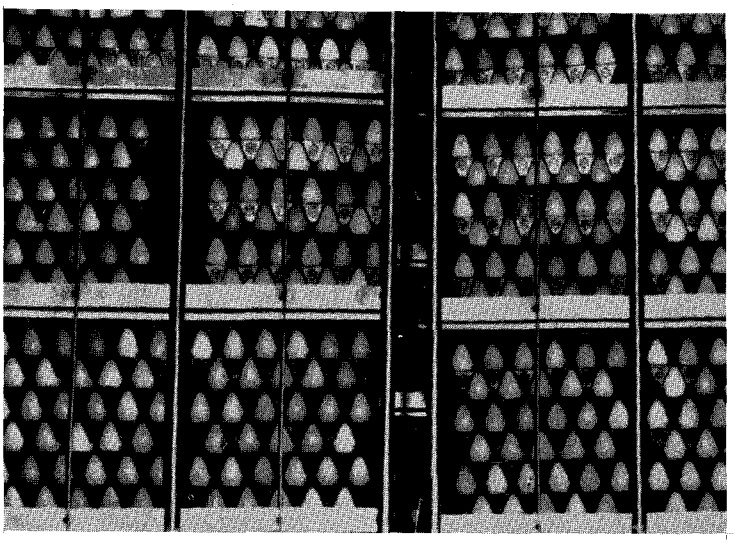
계란이 체화될 때 도매상에 따라 적자판매를 피하기 위해 부도상인처럼 창고에 쌓아 놓은 곳이 있으며, 또 적자를 감수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덤핑판매를 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덤핑판매를 할 경우는 주로 외지로 반출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10원까지도 낮은 가격으로 과감히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양유통 김근식 사장(상란회 회장)은 "경북에서는 소금적용이 없어 물량이 체화될 때 외지상인과 거래나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대구는 여름철 온도가 높아 저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상인들에 있어서 덤핑판매는 당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시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대구에서는 가격조절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매차 1000여대가 30%판매

경북지역 계란소매는 수퍼마켓이나 가게 등을 통해 70%, 이동소매차가 30%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소매차는 1백여대로 추산되며 1일 차당 100~200판 정도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소매차는 철새처럼 그때 그때 이윤이 높은 품목으로 옮겨 취급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기간에는 김장철이어서 소매차가 배추를 많이



취급하고 있었다. 어느 상인은 배추값 폭락으로 배추장사가 별 재미가 없어 계란가격을 조금만 조절하면 소매차를 계란으로 끌어들여 체화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월말덤핑 성행하는 대구계란

생산자가 유통질서를 위해 시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상인에게 물어 보았다.

경북에서 생산된 계란의 품질은 우수한 편이라고 만족하고 있으며 간혹 선란이 안된 경우가 있으나 상인들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은 생산자들이 현찰거래보다 어음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어음은 주로 1개월짜리로 상인들이 어음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지 계란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때는 월말에 덤핑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상인들도 대구에서의 월말 덤핑계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자본력이 적으면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계란을 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농장 계란이 원활히 처리되고 있어 어음결제를 좋아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덤핑이 자행되는데 생산자들도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직판상인에게 농장에서 도매상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정상경로를 거친 계란이 이들과 가격경쟁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계란이 전체 계란시세를 흐리고 있는 경우이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최종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양계업계의 과제이나 이는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계란가격만 흐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지향했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양계조합 조만간 출범할 듯

경북지역의 계란유통은 생산자들이 주도하며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계사 신증축이 어려워 생산증가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측면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양계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91년 중에 경북양계협동조합의 출범이 확실시 된다. 소매라인을 확보하지 못한·상태에서 한곳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도매상들에게 꼼짝 못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상인은 조합이 만들어져서 계란을 취급하면 상인들 장사하기만 쉬워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반면 생산자들은 유통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양계조합이 결성되어 어떻게 계란을 취급하느냐가 향후 경북 계란유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